



미 증시, 엇갈린 GDP 결과 속 엔비디아 효과 등으로 강세

미국 증시 리뷰

23일(목)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(+14.0%)의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, 4분기 GDP 하향 조정 등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 중반 한 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, 이후 성장주 중심의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끝내 상승 마감(다우 +0.3%, S&P500 +0.7%, 나스닥 +0.5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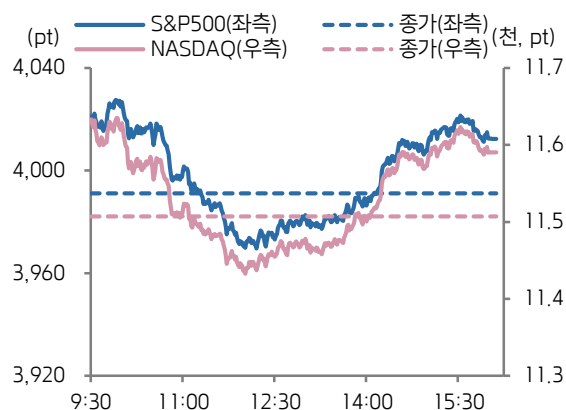
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는 2.7%(연율)로 지난 예비치(2.9%) 및 예상치(2.9%)를 모두 하회. PCE 물가지수(예비치 3.2% → 잠정치 3.7%), 기업투자(1.4% → 3.7%) 등은 상향 조정 됐으나, 개인소비지출(2.1% → 1.4%)이 하향 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을 하향 조정을 견인. 미 상무부 측은 개인소비지출이 가전제품, 자동차 등 구매 감소로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 성장이 강하지 않았다고 평가.

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19.2 만건으로 전주(19.5 만건) 및 예상치(20.0 만건)를 모두 하회했으며,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도 165.4 만건으로 (전주 169.1 만건) 및 예상치(170.0 만건)를 모두 하회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은 견조한 모습. 1월 시카고 전미활동지수는 0.23으로 전월(-0.46%) 부진세에 반등하며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.

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었다면서, 이들의 목표치인 2%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. 동시에 미국 경제는 견조한 소비경기와 고용시장의 풍부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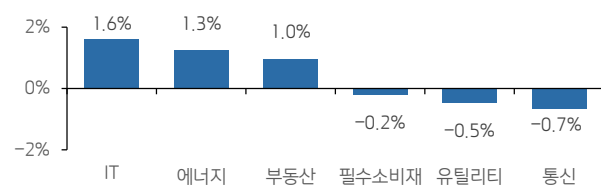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는 기술(+1.6%), 에너지(+1.3%), 부동산(+1.0%) 등이 강세, 커뮤니케이션(-0.7%), 유틸리티(-0.5%), 필수소비재(-0.2%) 등이 약세. 엔비디아(+14.0%)는 AI 용 반도체 칩 판매 호조 등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,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한 영향으로 폭등. 반면 모더나(-6.7%)는 코로나 백신 매출 감소 등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함에 따라 급락. 넷플릭스(-3.4%)도 100 여곳에 달하는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구독료를 최대 50%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수익성 악화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약세.

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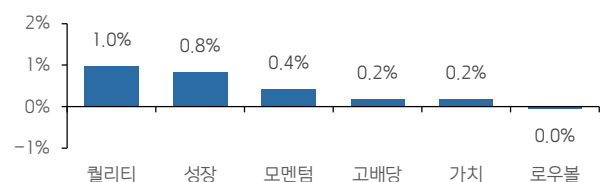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439.09	+0.89%	USD/KRW	1,296.92	-0.63%
코스피 200	319.44	+1.11%	달러 지수	104.60	+0.01%
코스닥	783.28	+0.61%	EUR/USD	1.06	-0.08%
코스닥 150	1,127.00	+0.45%	USD/CNH	6.92	+0.2%
S&P500	4,012.32	+0.53%	USD/JPY	134.71	-0.1%
NASDAQ	11,590.40	+0.72%	채권시장		
다우	33,153.91	+0.33%	국고채 3년	3.603	-2.9bp
VIX	21.14	-5.16%	국고채 10년	3.597	-3.2bp
러셀 2000	1,908.09	+0.71%	미국 국채 2년	4.700	+0.6bp
필라. 반도체	2,988.81	+3.33%	미국 국채 10년	3.885	-3.1bp
다우 운송	14,707.94	+1.06%	미국 국채 30년	3.885	-2.9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258.16	+0.36%	WTI	75.67	+2.33%
MSCI 전세계 지수	633.68	-0.45%	브렌트유	82.53	+2.39%
MSCI DM 지수	2,730.88	-0.35%	금	1829.9	-0.63%
MSCI EM 지수	982.06	-1.32%	은	21.33	-1.62%
MSCI 한국 ETF	60.52	+1.68%	구리	405.45	-3.2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1.68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49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7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296.7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나스닥 등 성장주 중심의 미국 증시 강세가 국내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2. 엔비디아발 AI 관련주 기대감 3. 환율 레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강도 약화 여부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전일 미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 영향 지속되며 IT 업종 중심으로 반등했으나,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점이 상승폭을 제한. 미국 4 분기 경제성장률은 QOQ 2.7%로 지난 예비치(2.9%), 대비 하향조정되었으며, 개인소비지출(2.1% → 1.4%)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에 기인.

반면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예비치 3.2%에서 3.7%로 상향조정되며 오늘 밤 10시 30분 1월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물가 우려는 재차 부각된 상황. 현재 FED Watch 상으로 3월 FOMC 50bp 인상 가능성이 27%대까지 상승, 1월 근원 PCE 물가지수 컨센서스는 전년대비 4.3%(전월 4.4%), 전월대비 0.4%(전월 0.3%)로 형성. 해당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, 금리 인상 경로 불확실성 부각되며 금리와 달러에 재차 상승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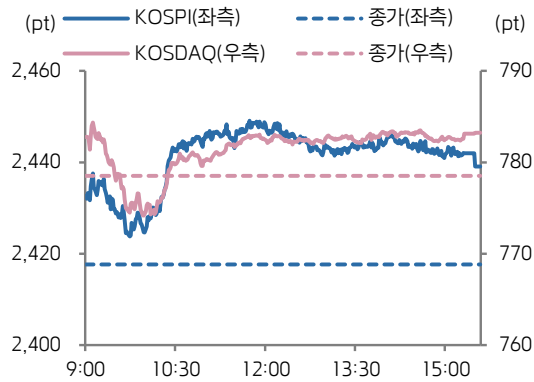
23일(목) 국내증시는 전일 2월 FOMC 의사록,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전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AI 용 반도체 관련 산업 기대감 부각되며 반도체, AI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 (KOSPI +0.89%, KOSDAQ +0.61%).

전일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.5%로 동결했지만, 이후 기자회견에서 2% 목표치까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상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. 그럼에도 시장은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일단은 중단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긍정적으로 해석, 금통위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음. 다만 한미 금리차가 1.25%p로 확대되었고 3월 FOMC에서 25bp 인상이 단행된다면 1.5%p까지 확대되며 2000년 이후 최대 역전폭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환율 1,300원대 고착화 및 외국인 순매수 둔화 우려는 존재.

업종별로는 전일 엔비디아가 견인한 반도체, 소프트웨어, AI 관련주들의 약진 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회복 및 재고 조정 국면 마무리 기대감 등으로 자동차, 화장품, 항공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 역시 강한 반등세를 보임. 2022년 성장률을 크게 미달했던 중국은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을 5% 이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 4일 양회까지는 중국 소비 관련주 모멘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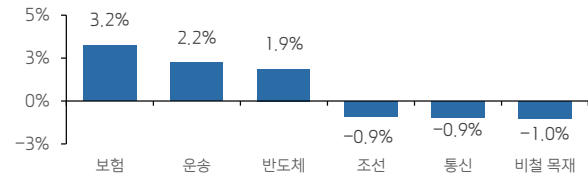
한편 이번주 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로봇업계 수요를 반영한 '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.0'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. 향후 공개되는 정책 타임라인에 따라 관련주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, 이번 년도에 자금이 크게 집행되는 분야인 콘텐츠, 자율주행, UAM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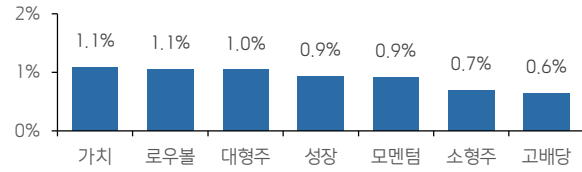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